

한국 漢詩에 인용된 泰山의 형상화 양상 연구*

이 동 재**

< 目 次 >

- | | |
|------------------------|----------------------------|
| I. 緒論 | IV.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형상화 |
| II.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의 형상화 | |
| III. 중대한 가치가 있는 일의 형상화 | V. 結論 |

<국문 초록>

泰山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으로 중국 역대 왕조의 황제들이 통치의 정당성을 하늘로부터 확인받는 의식인 封禪儀式을 거행하였고, 공자가 이 산을 오른 이후 五嶽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산으로 인식되었다.

태산이 문학의 소재로 처음 등장한 것은 詩經이며, 이후 盛唐의 杜甫가 태산에 올라 지은 <望嶽> 시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문인 가운데 태산을 소재로 하여 쓴 시는 고려 말 李穡이 지은 <雲出泰山> 최초이고, 이후 조선에 들어와서 李民宥, 鮮于澆, 吳翹, 李玄錫, 徐宗泰 등이 시를 지었다.

泰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관용구나 속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어휘이고, 문인들이 지은 漢詩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시어이다. 태산은 우리나라의 漢詩에서는 주로 挽詩에 인용되어 고매한 인품과 학식, 덕망 등이 높은 亡者를 형상화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이는 『禮記』 「檀弓」 上에서 ‘泰山

* 이 논문은 2018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2018-0154-0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leedj@kongju.ac.kr

其類라고 하여, 공자의 죽음을 비유한 이후 학문이나 공적이 뛰어난 인물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의미가 轉成되어 중대한 가치가 있는 일을 형상화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이는 司馬遷이 任安에게 보낸 편지에서, 史記의 완성을 태산에 비유하여 죽음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한 것에서 기인하였으며, 우리나라의 漢詩에서도 종종 특정 인물의 殺身成仁과 같은 행위를 비유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나아가, 태산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를 비유하였는데, 이는 주로 자손들이나 후학들에게 훈계의 목적으로 지은 시에서 학문의 목표를 높게 세울 것을 당부한 시에서 활용되었다.

앞으로 태산을 직접 소재로 한 한시를 비롯하여 태산을 직접 유람하고 쓴 유람기를 발굴하여 우리조상들이 태산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泰山, 孔子, 泰斗, 詩經, 杜甫, 挽詩

I. 緒論

泰山은 우리나라 산이 아닌 중국의 산인데도 우리의 언어생활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일상 언어생활에 늘 사용하는 관용구나 속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태산이다. 태산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에 채록되어 있는 용례가 민요 60여건, 설화 290여건이 있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에는 10여건의 지명이 있다.¹⁾ 이처럼 우리의 속담이나 민요, 신앙 속에 활용된 태산의 함의는 단순히 생활과 문화의 의미를 넘어 동경의 대상이 되어서 평생에 한 번 가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게

1) 최원석, 「중국의 태산문화 전개와 한국의 수용 양상 - 동아시아 산악문화 논구 試論 -」, 『문화역사지리』 24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P.63 참조.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문학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漢詩에서 인용된 태산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태산의 의미와 이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태산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으로 중국의 五嶽 중에서도 으뜸으로 숭앙받는 산으로, 높이가 1,532m이며, 岱宗, 岱山, 岱岳, 泰岱 등으로도 불린다. 태산이 오악 가운데 크게 높거나 경치가 빼어나게 수려하지는 않지만 역대 황제들이 통치의 정당성을 하늘로부터 확인받는 의식인 封禪儀式을 이곳에서 거행하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겼다.²⁾ 또한 유학을 집대성하여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가 태어나고 강학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태산과 가까운 曲阜였고, 공자가 이 산을 오른 이후 공자를 상징하는 산이 되었다.³⁾ 이후 태산은 모든 산의 祖宗이 되어 하늘과 이어진다는 상징성을 얻고 마침내 중화문화의 발상지로서 ‘國山’으로 불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위대한 산이 되었다.⁴⁾

태산은 공자가 이곳을 오르고, 자신의 죽음을 태산에 비유한 이후에는 그 의미가 轉成되어 공자와 같이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 중대하고 가치가 있는 일,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 안정적인 것, 丈人の 별칭 등으로 비유되었다.

태산이 문학의 소재로 등장한 것은 詩經이 처음이고,⁵⁾ 공자가 태산을 등정한 이후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태산에 올라 시와 그림을 남겼다. 그

2) 기원전 219년 진나라 始皇帝를 시작으로 역대 왕조의 황제들은 이곳에서 봉선의식을 치렀으며, 특히 漢나라 武帝는 5회, 청나라 乾隆帝는 11번이나 봉선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3) 『孟子』, 孟子曰 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4) 김덕현, 「반드시 정상에 올라 작은 산을 빙 둘러 보리라」, 『태산, 그 문화를 만나다』, 민속원, 2012, p.65.

5) 『시경』, 「魯頌」 <閼宮>, 泰山巖巖 魯邦所詹.

가운데 두보가 태산에 올라 지은 <望嶽>⁶⁾ 시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문인 가운데 태산을 소재로 하여 쓴 시는 고려 말 牧隱 李穡이 지은 <雲出泰山> 최초이고,⁷⁾ 이후 조선에 들어와서 李民宥이 지은 <泰山在濟南府之泰安州北五里 路上可以望見 而適被雲罩不得見 悵然賦之> 1수⁸⁾와 鮮于澆의 <泰山> 2수,⁹⁾ 吳翻의 <濟上見泰山> 1수,¹⁰⁾ 李玄錫의 <泰山> 1수,¹¹⁾ 徐宗泰의 <泰山> 1수¹²⁾ 등 6수가 있다. 이밖에 태산을 賦로 읊은 것은 朴祥의 <登泰山小天下賦>¹³⁾ 1편과 河弘度の <登泰山小天下>¹⁴⁾ 1편 등이 있다.

또한 태산을 시어로 인용한 漢詩는 그 수효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태산은 우리나라의 漢詩에서는 주로 挽詩에 인용되어 고매한 인품

- 6) 杜甫, 『杜詩鏡典』, pp.66-67, <望嶽>, 岱宗夫如何, 齊魯青未了. 造化鍾神秀, 陰陽割昏曉. 盪胸生曾雲, 決眇入歸鳥. 會當凌絕頂, 一覽衆山小.
- 7) 李穡, 『牧隱詩藁』, 한국문집총간 4, p.385, <雲出泰山>, 雲出泰山如蓋飛, 陽鳥忽爾斂光輝. 不崇朝已兩天下, 却逐長風何處歸.
- 8) 李民宥, 『敬亭先生集』, 한국문집총간 76, p.295, <泰山在濟南府之泰安州北五里路上可以望見 而適被雲罩不得見 悵然賦之>, 雲端終日漫勞神, 送日情如望美人. 祇隔此間青未了, 不知那箇本來眞. 肅然梁父封應廢, 玳檢銀繩迹已陳. 天子想厭秦漢事, 茂陵空沒老詞臣.
- 9) 鮮于澆, 『遜菴先生全書』, 한국문집총간 93, p.59, <泰山> 其一, 巍巍泰山, 萬山之宗. 嗚呼聖人, 萬世之宗. 泰山其山, 聖人其人. 衆人衆山, 匪山匪人. 其二, 巍巍泰山, 峻極于天. 嗚呼聖人, 浩浩其天. 泰山雖高, 自下可升. 嗚呼夫子, 不可階升.
- 10) 吳翻, 『天坡集』, 한국문집총간(續) 95, p.48, <濟上見泰山>, 經過默禱愧微誠, 雲駭俄開黛色呈. 七十二君曾問道, 恒嵩華嶽敢爭衡. 朝陽洞裏群靈集, 玉女臺前萬象清. 安得翩然凌絕頂, 俯看齊楚小如枰.
- 11) 李玄錫, 『游齋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56, p.36, <泰山>, 岱宗巍巍地維東, 觀日峯高刺碧穹. 齊魯近吞空翠裏, 滄瀛俯壓杳茫中. 封巔幾罨金繩檢, 若礪還盟鐵券功. 登眺方知天下小, 杏壇回首想遺風.
- 12) 徐宗泰, 『晚靜堂集』, 한국문집총간 163, p.19, <泰山>, 岱嶽蒼蒼鎮大東, 天鍾神秀最爲雄. 素王游眺寰區小, 列辟登封事烈崇. 黛色盡包齊魯域, 山腰俯納渤溟風. 試看膚寸彌天澤, 不動猶深潤物功.
- 13) 朴祥, 『訥齋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8, p.465, <登泰山小天下賦>.
- 14) 河弘度, 『謙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續) 97, p.53, <登泰山小天下>.

이나 학식, 덕망 등이 높았던 亡者를 비유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그 의미가 轉成되어 중대한 가치가 있는 일,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 안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경지 등을 비유하는 시어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태산과 관련된 연구는 문학, 역사, 사상, 신앙, 인문지리 등에 관한 연구로 주로 중국에서의 연구 성과가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소략하나마 진행되었다.¹⁵⁾ 우리나라에서 태산을 대상으로 한 문학 연구는 윤석우가 李白과 杜甫의 시 가운데 태산을 소재로 한 시를 분석하였으며,¹⁶⁾ 심우영이 중국의 시 가운데 태산을 소재로 한 시 가운데 인문경관을 읊은 시를 분석하였다.¹⁷⁾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문인들이 지은 태산을 소재로 한 시와 태산을 시어로 활용한 漢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한시에 인용된 태산의 의미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태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원형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한시에서 인용된 태산의 의미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첫째,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의 형상화, 둘째, 중대한 가치가 있는 일의 형상화, 셋째,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형상화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15) 이에 관한 자세한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은 김지영의 「태산문화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지리산문화연구의 의의와 전망」이 자세하다.(김지영, 「태산문화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지리산문화연구의 의의와 전망」, 『남도문화연구』 31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6, pp.51-75.)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의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16) 윤석우, 「唐詩에 나타난 中國의 名山」, 『중국어문학논집』 35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pp.271-294.

17) 심우영, 「泰山詩에 나타난 人文景觀 연구」, 『중국문학연구』 33집, 한국중문학회, 2006, pp.145-170.

Ⅱ.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의 형상화

『禮記』「檀弓」上에 공자가 逝世하기 7일 전, “태산이 무너지려는가, 대들보가 꺾어지려는가, 철인이 병들려는가?”¹⁸⁾라고 읊자, 子貢이 이것을 듣고 “태산이 무너진다면 나는 누구를 사모하고 우러러볼 것인가. 대들보가 꺾여 지고 철인이 병든다면 나는 장차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夫子께서 아마 장차 병이 드시려는 것이다”¹⁹⁾라고 하며, 공자의 죽음을 예견하였다. 이후 태산은 공자와 같은 성인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고, ‘태산이 무너졌다(泰山其頽)’는 공자의 죽음을 비유한 이후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의 죽음을 비유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또한 『新唐書』「韓愈傳」에 “한유가 죽은 후 그의 학문이 성행하고, 학자들이 그를 우러러 보기를 태산북두처럼 하였다.”²⁰⁾라고 하여, ‘태산’은 하늘의 별자리인 북두칠성과 병칭하여 ‘泰山北斗’라는 성어가 되어서, 가장 위에 자리한 인물이나 권위자로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을 비유하는 성어가 되었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인이 지은 漢詩에서 ‘태산’이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을 형상화한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조선 초기 학자이자 문인인 陽村 權近(1352~1409)이 영의정 浩亭 河崙(1347 ~1416)이 문병을 오자, 이에 사례하여 지은 <謝領議政 河公 枉駕問病> 시이다.

領府崇班絕百寮	영상의 높은 자리 백관에 으뜸인데
晉山勳望泰山高	진산의 공훈 덕망 태산처럼 높았네.
守持剛正堅如鉄	강정함을 지켜 굳건하기가 쇠 같았고

18) 『禮記』, 「檀弓」上, 歌曰 泰山其頽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

19) 『禮記』, 「檀弓」上, 子貢聞之曰 泰山其頽 則吾將安仰. 梁木其壞 哲人其萎 則吾將安放. 夫子殆將病也.

20) 『新唐書』, 「韓愈傳」, 自愈沒 其學盛行 學者仰之如泰山北斗.

剖析精微細入毫	정밀히 분석하여 털끝까지도 헤아렸네.
浩浩詞源追李杜	넓고 큰 문장 근원 이백과 두보를 따르고
巍巍相業鄙蕭曹	높다란 재상의 공업 소하나 조참보다 뛰어났네.
哀矜老病仁心切	늙고 병들 가엾이 여기는 어진 마음 간절하여
來問窮廬不憚勞 ²¹⁾	궁핍한 집 찾아옴을 수고롭다 아니하네.

權近在 연배나 직위가 낮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을 온 영의정 河崙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쓴 시이다. 권근은 하륜이 영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외람되게도 곤궁한 자신의 집을 찾아 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 거기에 더하여 존숭과 경모의 마음을 담아 하륜을 태산과 같은 인물이라고 칭송한다.

권근은 하륜이 인격과 성정이 剛正하여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고, 또 周密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빈틈이 없었다고 여겼다. 또한 시문도 盛唐의李白과 杜甫에 근원을 두고 힘써 익혀서 그들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칭송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륜이 이룬 공적은 중국 漢나라의 재상으로 건국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蕭何(BC?~BC193)나 曹參(?~BC190)보다도 더 뛰어나 태산처럼 우러러 본다고 칭송을 하고 있다.

이처럼 ‘태산’은 ‘존경과 경모의 인물’을 형상화한 어휘로 활용되었다. 태산이 존경과 경모의 인물을 형상화한 것은 다음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조선 초기 인물인 泰齋 柳方善(1388~1443)이 春亭 卞季良(1369~1430)을 그리워하며 지은 <奉懷春亭卞相國> 시이다.

春亭重望壓崇班	춘정의 중망은 영상들 가운데 으뜸
多少東人仰泰山	다소의 동인들이 태산처럼 우러르네.
詩倒風騷嚴格律	시는 시경보다 뛰어나 격률이 엄격하고
學窮莊老透機關	학문은 노장을 궁구하여 기미를 꿰뚫었네.

21) 權近, 『陽村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7, p.120, <謝領議政河公枉駕問病>. 번역 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원문DB에 탑재된 내용을 전재하였으며, 번역의 일부는 연구자의 논지에 맞게 고쳤다.

鳴村日暮雲煙暝 명촌엔 해가 저물어 구름 안개 어두워지고
 華嶽秋深草樹斑 화악산은 가을이 깊어 풀과 나무가 얼룩이 지네.
 兩地相思無限意 양쪽 땅에서 서로 끝없이 그리는 마음
 一樽何夕好開顏²²⁾ 어느 날 저녁이나 통술 놓고 기분 좋게 웃고 즐기려나?

시의 전반부는 유방선이 변계량에 대한 칭송이다. 변계량은 시문이 뛰어나 詩經의 경지에 이르렀고, 학문은 老莊에 관심을 두어 노장학의 심오한 경지를 꿰뚫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변계량은 중망이 영상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태산처럼 우러러 본다고 칭송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는 유방선이 변계량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유방선은 자신이 살고 있는 경상도 영천의 명촌에서 해가 지는 저녁에 변계량이 보고 싶은 마음을 “명촌엔 해가 저물어 구름 안개 어두워지고, 화악산은 가을이 깊어 풀과 나무가 얼룩이 지네.”라고 읊고 있다. 화악산은 밀양의 화악산으로 변계량이 태어난 密陽 龜齡里를 가리킨다. 즉 유방선이 살고 있는 영천과 밀양은 지척의 거리인데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움만 쌓이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는 태산이 변계량의 시문과 학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중망이 높아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활용되었다.

다음의 시는 조선 전기 문인인 樗軒 李石亨(1415~1477)이 동료 문인인 崔恒(1409~1474)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挽詩인 <哭寧城府院君崔恒>이다.

擢登金枋侍龍顏 금방에 뽑혀서 임금을 모시고
 一代斯文仰泰山 한 시대 사문에서 태산처럼 우러렸네.
 麟閣畫圖勳業重 기린각의 화상은 훈업을 중히 여긴 것
 鳳池寅亮笑談閑 봉황지에서 임금을 모시고 한담을 나눴었네.

22) 柳方善, 『泰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8, p.633, <奉懷春亭卞相國>.

齊驅李杜詩壇上 이백과 두보와 나란히 시단에 서고
 共泳班揚學海間 반고와 양웅과 함께 학문의 바다에 헤엄쳤네.
 天上玉樓成幾日 천상의 옥루는 어느 날에 만들어졌나?
 人間丹旒夕陽殘²³⁾ 인간 세상의 붉은 깃발 석양에 지네.

시의 전반부는 최항이 태산처럼 추앙받는 이유와 그의 초상이 기린각에 걸린 것에 대한 설명이다. 崔恒은 장원급제한 이후 학문적 성취와 典章制度의 정비에 많은 업적을 남겨서 당대의 斯文에서는 그를 태산처럼 추앙하였다. 또한 그가 영의정의 반열에 올라 임금을 잘 보좌하여 많은 공훈을 남겼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그의 초상이 기린각에 봉안되었다는 것이다.

기실 최항은 1434(세종 16)년 謁聖文科에 장원급제하여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고, 『東國正韻』, 『龍飛御天歌』 등을 찬진하였다. 이후 세조를 도와 『經國大典』을 편수하고, 『四書五經』에 口訣을 달아 출간하였으며, 『東國通鑑』, 『世祖實錄』, 『睿宗實錄』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 정비와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시의 후반부는 최항이 태산처럼 추앙받는 이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최항의 시문은 이백과 두보와 같은 반열에 이르렀기 때문에 『龍飛御天歌』 등을 지을 수가 있었고, 역사에 대한 안목과 식견, 나아가 필법이 班固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經國大典』과 『世祖實錄』, 『睿宗實錄』 등을 편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斯文에서 그를 태산처럼 추앙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태산은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을 비유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다음의 시는 조선 후기 문인인 玄谷 趙緯韓(1567~1649)이 象村 申欽(1566~1628)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만시인 <挽玄軒象村> 시 3수 가운데 세 번째 시이다.

23) 李石亨, 『泰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9, p.417, <哭寧城府院君 崔恒>.

昨夜妖星犯上台	어젯밤 요성이 상태성을 범하더니
蒼生無祿泰山頹	백성은 복이 없어 태산이 무너졌구나.
斯文已喪吾安放	사문은 이미 우리의 의지를 잃었고
時事方艱孰使恢	시사는 바야흐로 누구도 넓히기가 어렵게 되었네.
天不憐遺邦國瘁	하늘이 나라의 고통을 구제할 원로를 남겨두지 않고
道之將廢士林哀	사도가 장차 황폐해지고 사림이 슬퍼하네.
却將朝野無窮慟	또한 조야가 끝이 없는 슬픔에 빠지고
都付佳城若斧堆 ²⁴⁾	모두들 무덤을 마렵봉처럼 부치네.

시의 전반부는 신희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 여파에 대한 설명이다. 신희는 영의정을 맡아 1627년에 일어난 丁卯胡亂을 수습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죽었다. 그리하여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영의정의 부재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 해결이 遷延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위환은 “어젯밤 요성이 상태성을 범하더니, 백성은 복이 없어 태산이 무너졌구나.”라고 시화한 것이다. 기실 妖星은 사람의 죽음을 맡은 별이고, 三台星은 영의정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기실 신희는 타고난 성품이 介潔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하기 전부터 문명을 떨쳐 사림의 신망을 받았다. 또한 뛰어난 문장으로 대명의교문서 등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과 시문의 정리 등 文運의 진흥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시의 후반부는 신희의 죽음에 대한 애도이다. 조위환은 신희의 갑작스럽게 죽자, 『시경』의 “원로 한 분을 아껴 남겨 두어서 우리 임금을 지키게 하지 않는구나.”²⁵⁾를 인용하여, “하늘이 나라의 고통을 구제할 원로를 남겨두지 않고, 사도가 장차 황폐해지고 사림이 슬퍼하네.”라고 하여, 하늘을 원망하고 사림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으로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아가 신희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朝野를 떠나 온 국민들의 슬픔으로 승화시켜 작자 자신의 개인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화하고 있다. 이

24) 趙緯韓, 『玄谷集』, 한국문집총간 73, p.251, <挽玄軒象村> 其三.

25) 『詩經』, 「小雅」, <十月之交>, 不憐遺一老 俾守我王.

시에서도 태산은 위대한 공적이 있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신
 흠을 형상화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태산은 공자를 가리키는 말이 전성되어 공자와 같이 위대한 인
 물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다가, 훗날 학문이나 공적이 뛰어난 인물을 비유
 하는 말이 되었으며, 한시에서는 주로 망자의 넋을 추모하는 만시에 활용
 되는 시어가 되었다.

Ⅲ. 중대한 가치가 있는 일의 형상화

태산이 ‘중대하고 가치가 있는 일’을 비유한 것은 司馬遷이 선배 관료인
 任安에게 보낸 편지인 <報任少卿書>에서 보인다. 사마천은 “사람은 본
 래 한 번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이 혹은 태산처럼 무겁고 혹은 깃털처럼
 가벼운 것은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²⁶⁾라고 하였다. 이는 자
 신이 宮刑의 치욕을 참고 살았던 것은 『史記』의 완성이 죽음보다 더 소중
 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후 ‘태산’은 단순히 높고
 큰 산이라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중대한 일을 비유하는 것으로 그 의미
 가 확대되었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인들이 지은 漢詩에서 시어로 인용된 태산
 가운데 그 의미가 중대하고 가치가 있는 일을 형상화한 시 몇 수를 살펴
 본다.

이 시는 조선 전기 燕山朝의 문인인 虛庵 鄭希良(1469~?)이 중국 漢나
 라 때 武將인 李陵(?~BC 74)을 읊은 <李陵> 시이다.

自負平生大丈夫 평생을 대장부로 자부하였으나
 英雄歎息未應無 영웅도 탄식은 응당 없지는 않았으리.

26) 『文選』 권41, <報任少卿書>, 人固有一死 死 或重於泰山 或輕於鴻毛 用之所趨異也.

功嫌一髮多慙霍	터럭 하나같은 공도 꺼리어 광거병에게 더욱 부끄러웠고
愧在千秋合謝蘇	천추의 수치로 남아 소무에게 마땅히 사절하였네.
漢法不饒飛將種	한나라 법은 비장군의 후예에게 너그럽지 않아서
胡塵虛擲泰山軀	오랑캐 땅에 부질없이 태산같은 몸을 던졌구나.
氈場白首誠何事	추운 땅에서 백수로 성심을 다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莫說高人富貴孤 ²⁷⁾	高人の 부귀가 孤高하다고 말하지 말라.

시의 전반부는 이릉에 대한 후대인들의 평가이다. 이릉은 漢나라의 이름난 무장이었으나, 그가 거느린 5000의 군사로는 흉노족의 8만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중과부적이었다. 그래서 이릉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투항하였다.²⁸⁾ 그리하여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쌓은 무공은 霍去病과 비교되어 도리어 수치가 되었으며,²⁹⁾ 흉노에 사신을 갔다가 불모로 잡혀 온갖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孤節을 지킨 蘇武와 비교되어 靑史에 부끄러운 인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다.³⁰⁾

시의 후반부는 이릉이 투항한 원인과 작자 자신의 평가이다. 정희량은 “한나라 법은 비장군의 후예에게 너그럽지 않아서, 오랑캐 땅에 부질없이 태산같은 몸을 던졌구나.”라고 하여, 이릉을 변호하고 있다. 이릉의 조부인 李廣은 飛將軍이라는 별칭을 가진 무장으로, 흉노족을 여러 번 물리쳐

27) 鄭希良, 『虛庵先生遺集』, 한국문집총간 18, p.45, <李陵>.

28) 李陵(?~BC 74)은 前漢의 무장으로 보병 5000명을 인솔하여 흉노의 배후를 기습하여 이광리를 도왔으나 귀로에 무기·식량이 떨어지고 8만의 흉노군에게 포위되어 항복했다. 이릉은 흉노에 항복한 후 單于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右校王으로 봉해져 선우의 군사·정치의 고문으로서 활약하였다.

29) 霍去病(BC 140~BC 117)은 前漢 武帝 때의 장군으로 정예부대를 이끌고 대군보다 먼저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는 전법으로 흉노를 토벌하여 한제국의 영토 확대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불과 24세로 죽자 무제는 크게 슬퍼하고 일찍이 그가 대승을 거둔 祁連山(天山)의 형상을 세워 그의 무공을 기렸다.

30) 蘇武(BC60~?)가 무제 때인 BC 100년에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체포되어 항복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소무는 절의를 굽히지 않고 이를 거부하자 황야로 보내져 19년에 걸친 역류생활을 했다. 소제가 즉위한 후 흉노와의 화해가 성립되어 BC 81년 장안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그의 충절을 높이 사 훗날 蘇武孤節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다.

서 한나라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손자인 이릉이 흉노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도 조부의 공훈과 그 자신이 흉노족에게 패한 원인이 중과부적이었다는 것을 참작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의 군법은 전쟁에서 패하면, 패전의 이유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형을 하는 것이 법이었다. 그래서 정희량은 이릉이 태산처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투항하였다고 변호한 것이다.

시의 미련은 다시 정희량 자신의 입장이다. 鄭希良은 戊午史禍에 연루되어 曹偉(1454~1503)와 함께 龍彎[의주]에 유배되었다가 放免된 이후 종적을 감춘 인물이다. 그는 북쪽 용만땅에서 유배자의 신세로 추위와 싸우며 霍去病的 공적이나 蘇武의 孤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이릉과 같다는 평가를 받아도 좋으니 태산처럼 크고 소중한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도 ‘태산’은 목숨과 같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태산의 의미가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을 형상화된 시는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조선 후기 문인인 宋奎濂(1630~1709)이 아들과 사위, 조카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을 담은 <戒子婿姪> 시이다.

男見事業泰山如	남아가 사업을 보기를 태산처럼 해야 하는 것
九仞工夫可忽諸	아홉 길 높이의 공부를 어찌 소홀히 하랴!
意馬易奔宜猛制	생각의 말은 쉽게 날뛰니 맹렬히 제압해야 하는 것
心田難闢盡精鋤	마음 밭은 개간하기 어려우니 어찌 정성들여 김매지 않으리.
要全德性須疏酒	덕성을 온전히 보전하려면 술을 멀리하여야만 하고
欲立身名在讀書	입신양명하려면 독서를 하는데 있다네.
歲月一過追不得	세월은 한 번 지나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
莫教虛老歎窮廬 ³¹⁾	헛되이 늙어가며 가난한 살림을 탄식하지 말게나.

31) 宋奎濂, 『霽月堂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37, p.337, <戒子婿姪>. 번역문은 한국 고전번역원의 고전원문DB에 탑재된 내용을 전재하였으며, 번역의 일부는 연구자의 논지에 맞게 고쳤다.

송규렴은 아들과 사위, 조카들에게 남아가 일생을 두고 별이는 사업은 태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다. 여기에서 태산은 세상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을 말한다. 그러면서 태산과 같은 사업을 이루려면 처음부터 중단없는 노력과 끝마무리를 잘해야 태산에 이를 수 있다고 조언한다. ‘九仞工夫’는 『書經』 「旅葵」 편에 “구인의 산을 만드는 데에 완성 단계에서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도 일을 다 이루지 못한다.”³²⁾는 말로 끝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송규렴은 태산과 같은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수양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하늘로 부여받은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술을 멀리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입신양명의 요체는 독서에 달려 있으므로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아가 세월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분일초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태산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을 비유하는 시어로 형상화되었다.

다음의 시는 三淵 金昌翁(1653~1722)이 개성 유람길에 그가 존송하는 선현인 圃隱 鄭夢周(1337~1392)가 죽임을 당한 장소인 선죽교를 지나며 지은 <善竹橋> 시이다.

烟草霜溪日彩寒	안개 낀 서리 냇가에 햇살도 차가운데
成仁遺血此中間	인을 이룬 유혈이 이 사이에 있네.
匹夫或自投溝壑	필부도 혹 저절로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一死誰能重泰山	한 번 죽음을 누가 태산보다 중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青史論時猶涕泗	청사를 논할 때마다 아직도 눈물이 나고
小橋逢後別心顏	작은 다리에서 만난 후 마음으로 작별했네.
經過下馬應如例	하마비를 지나면서 분명 예전처럼
揭表龜頭好是閑 ³³⁾	비석을 읽어보며 이런 閑遊를 즐기리라.

이 시는 김창흡이 1700년(숙종 26) 9월 큰형인 金昌集(1648~1722)이 개

32) 『書經』 「旅葵」, 爲山九仞之功虧一簣.

33) 金昌翁, 『三淵集拾遺』, 한국문집총간 166, p.315, <善竹橋>.

성 유수로 근무할 때, 그 곳을 방문하여 嵩陽書院 등을 유람하며 지은 시이다. 김창흡은 정몽주의 죽음은 殺身成仁한 것이므로 태산보다 중하다고 찬양하고 있다. 그는 정몽주의 죽음은 殺身成仁한 것이므로 태산보다 중하여 필부의 죽음과 다르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靑史에 길이 이름이 남은 것이며, 자신도 정몽주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태산은 殺身成仁처럼 가치가 있는 일을 비유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다음의 시는 한말 화서학파를 대표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이자 의병장인 柳麟錫(1842~1915)이 충북 제천 장담에 책을 읽고 강학할 때, 門人들에게 훈시한 내용을 시화한 <示會講諸人> 이다.

剛信分毫無此外	강직과 신의 외에는 터럭만큼도 필요가 없는 것
心知須定脚跟牢	심지는 밑바탕을 굳건하게 정착시켜야 하는 것
述工蟻好時時化	저술공부는 미녀를 좋아하듯 해야 때때로 진화가 되고
進步鴻看漸漸高	진보는 크게 보아야 점점 높아진다네.
得正行爲便賢聖	바름을 얻으려면 賢聖을 편애하여야 하고
絕私牽制是雄豪	사사로움을 끊고 견제하여야 영웅호걸이 된다네.
所天與我兼形性	하늘이 나에게 형체와 본성을 부여한 것은
有重泰山輕細毛 ³⁴⁾	태산보다 중하고 작은 털보다 가벼운 것이 있다네.

유인석은 화서학파인 重菴 金平默(1819~1891)과 省齋 柳重敦(1832~1893)의 제자로 衛正斥邪 운동이 좌절되자 뒷날을 도모하기 위해 乾淨地인 충북 堤川의 장담으로 移居하여, 그곳에서 강학활동을 하며 유학의 맥을 잇고자 하였다. 이 때 그의 뜻에 동조하여 찾아온 門人들에게 당부의 내용을 담은 시이다.

유인석은 학문이란 斯道를 수호하겠다는 강직한 마음과 선현을 믿고 신봉하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나아가 저술공

34) 柳麟錫, 『毅庵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337, p.116, <示會講諸人>.

부는 미녀를 좋아하듯이 해야 진보가 있고, 높고 크게 보아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바름을 얻기 위해서는 공자와 같은 성인을 표준으로 삼고, 몸의 主體인 마음이 本然의 정직함을 잃지 않도록 제 마음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에 욕사라도 私欲이 섞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데 성실하지 못하게 되어 마음의 뒤틀림이 되므로 사욕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인석은 하늘이 인간에게 형체와 본성을 부여할 때 태산보다 중한 것도 있고 毫末보다 가벼운 것이 있는데, 태산보다 소중한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인 明德을 밝히는 삶을 말하며, 毫末보다 가벼운 것은 사욕에 빠져 바름을 잃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 시에서도 태산은 인간의 삶에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태산은 司馬遷이 궁형의 치욕을 참고 史記를 완성하기 산 것을 비유한 이후, 그 의미가 전성되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을 비유하는 단어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漢詩에서는 종종 특정 인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헌신하는 등 가치가 있는 일을 하거나 삶을 산 사람을 형상화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IV.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형상화

태산은 실상 그리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태산이라는 이름의 상징성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서 집단이미지가 형성되어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할 일이 태산 같다.’거나 ‘걱정이 태산이다.’ 등의 속담을 일상적으로 쓴다. 또한 楊士彦(1517~1584)의 시조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흠로다.”를 곧잘 읊조린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태산은 단순히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높은 산’이라는 의미보다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거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 등으로 비유되곤 하였다.³⁵⁾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漢詩에서 인용된 태산의 의미가 단순히 높은 산의 의미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를 비유하는 의미로 활용된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고려 말 문인인 稼亭 李穀(1298~1351)이 아들에게 준 <用家兄詩韻 寄示兒子訥懷> 시이다.

男兒須宦帝王都	남아는 제왕의 도읍에서 벼슬을 해야 하고
若欲致身均是勞	자아를 완성하려면 두루 노력을 기울여야 하네.
汝識宣尼小天下	너도 알다시피 宣尼가 천하를 작게 여겼던 것도
只緣身在泰山高	자기 몸이 높은 태산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느니라.
三十年前懶讀書	삼십 년 전에 독서를 게을리 했던 탓으로
虛名却嘆白頭餘	백두가 된 뒤에 와서 허명을 탄식하노라.
汝今當惜分陰學	너는 지금 분초를 아껴 공부해야 할지니
富貴可求緣木魚 ³⁶⁾	연목어 같은 부귀도 구할 수가 있느니라.

이곡은 아들 訥懷에게 분초를 아껴 공부할 것을 당부한 시이다. 이곡은 아들에게 일찍이 공자가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긴 것은 공자의 몸이 태산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공자와 같은 성인도 이곳에 올라와 보고서야 비로소 천하가 작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汝識宣尼小天下, 只緣身在泰山高”는 蘇軾이 지은 <題西林壁>시³⁷⁾의 3,4구인 “不識廬山真面目, 只緣身在此山中”을 용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태산은 단순히 공자가 올라가 본 태산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

35) 최원석, 「중국의 태산문화 전개와 한국의 수용 양상 - 동아시아 산악문화 논구 試論 -, 『문화역사지리』 24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p.63 참조.

36) 李穀, 『稼亭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3, p.210, <用家兄詩韻 寄示兒子訥懷>.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원문DB에 탑재된 내용을 전재하였으며, 번역의 일부는 연구자의 논지에 맞게 고쳤다.

37) 蘇軾, 『東坡集·山谷集』, 중국 악록서사, p.126, <題西林壁>, 橫看成嶺側成峯, 遠近高低各不同. 不識廬山真面目, 只緣身在此山中.

자가 이룬 학문의 경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곡은 아들에게 공자가 이룬 학문의 경지, 즉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학문의 목표를 두고 분초를 아껴서 독서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곡은 아들에게 젊은 시절부터 공자가 이룬 경지인 태산을 목표로 하여 분초를 아껴서 독서에 매진한다면 본인처럼 늙어서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고, 이를 매개로 하여 벼슬 길에 올라서 부귀를 구할 수 있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처럼 태산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를 형상화한 것은 다음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학자인 星湖 李瀼(1681~1763)이 쓴 <伊川先生> 시이다.

稟質天成具體微	천부적인 자질로는 전체를 갖추기가 미약했지만
生期周孔與同歸	살아서 주공과 공자와 같이 되고자 기약했어라.
曾書有待斯尊閣	증서는 선생을 기다려 비로소 높아졌고
羲卦無傳賴發輝	희괘는 전수 없다가 선생이 뜻을 밝혔네.
殷殷心憂天下大	은은한 근심은 천하처럼 크고
巖巖氣象泰山巍	암암한 기상은 태산처럼 높았어라.
一千四百年寥闕	일천사백 년 동안이나 적막하다가
師道宗門復庶幾 ³⁸⁾	사도의 종문이 다시 소생하였도다.

이 시는 이익이 중국 宋나라의 대학자인 程頤(1033~1107)의 학문적 업적을 칭송한 시이다. 시의 전반부는 정이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업적에 대한 칭송이다. 程頤는 성인의 資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인과 같이 광대한 체계를 갖추기는 미약하였다.³⁹⁾ 그러나 그는 그의 형인 程顥(1032~1085)와 함께 周公과 孔子와 같은 성인을 목표로 세우고 학문에 매진하였다.

정이는 특히 曾자가 저술한 『大學』과 『중용』이 『예기』의 편장에 속했

38) 李瀼, 『星湖先生全集』, 한국문집총간 198, p.52, <伊川先生>.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원문DB에 탑재된 내용을 전재하였으며, 번역의 일부는 연구자의 논지에 맞게 고쳤다.

39) 『孟子』, 「公孫丑」上, 子夏子游子張皆有聖人之一體 冉牛閔子顏淵則具體而微.

으나 이를 尊信하여 단행본으로 만들었고, 나아가 『주역』의 傳을 지어 이를 후대에 쉽게 이해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이의 학문은 당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를 이루어 맹자(BC 372~BC 289?) 이후 유학의 맥을 잇게 하여 주자로 하여금 유학을 부흥시키는데 기여하게 하였다.

시의 후반부는 정이의 학문적 성취와 업적을 맹자와 비교하여 칭송하고 있다. 이익은 맹자를 ‘殷殷心憂天下大, 巖巖氣像泰山巍’라고 칭송하여, 공자 이후 호연지기를 가지고 학문에 정진하여 공자에 버금가는 학문적 위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업적이 태산같이 크고 높다고 하였다. 이는 맹자가 학문에 전념하여 날로 쇠퇴하여 가는 유학을 크게 융성시킨 공을 태산과 같다고 여긴 것이다.

나아가 이익은 정이가 맹자 이후 1400여년이 지나는 동안 나날이 쇠퇴해가는 유학을 소생시킨 공이 맹자와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주자가 <大學章句序>와 <中庸章句序>에서 정자(정이)가 맹자 이후 끊어진 도통을 이었다고 천명한 것을 다시 부연하여 칭송한 것이다.

이 시에서도 태산은 정이가 이룬 학문의 경지를 비유한 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를 형상화하였다.

다음의 시는 조선 후기 문인인 尹鳳九(1683~1767)가 지은 <次林溪尹學士集 贈職改旌韻> 시이다.

寧蹈魯連萬丈濤	차라리 노증런처럼 만 길 바다에 빠져 죽지
尺封深恥帝胡膜	한 자 봉분에도 오랑캐 황제에게 수치로 여겼네.
眼前只看輕生死	다만 눈앞에선 생사를 가볍게 보았을 뿐
身後非要有寵褒	죽은 후에 특별한 포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네.
大義春秋夷夏辨	춘추대의가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 짓는 것
名聲日月泰山高	명성이 일월처럼 빛나고 태산처럼 높구나.
兩孫炳節承贊祖	두 손자의 밝은 절의 현조를 이었으니
旌下吾曾肅粉袍 ⁴⁰⁾	나는 일찍이 정문 아래에서 옷자락을 여미었네.

40) 尹鳳九, 『屏溪先生集』, 한국문집총간 203, p.74, <次林溪尹學士集 贈職改旌韻>.

이 시는 1636년 일어난 丙子胡亂때 끝까지 淸나라와 和親條約을 반대한 삼학사 중의 한 명인 尹集(1606~1637)의 절의를 칭송한 시이다. 시의 전반부는 윤집이 죽음을 무릅쓰고 절의를 실천한 모습이다. 윤집은 청나라 심양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회유를 받았으나, 중국 전국시대 齊나라의 魯仲連⁴¹⁾처럼 끝까지 절의를 지키다가 사형을 당했다. 그는 사형을 당하는 날에도 초라한 무덤조차 오랑캐인 청나라 땅에 남게 된 것을 수치로 여겼다. 그가 절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草芥처럼 버린 것은 훗날 역사의 褒揚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春秋大義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기실 윤집은 吳達濟, 洪翼漢 등과 청나라와의 화친을 극렬히 반대하였으나, 인조가 항복을 하여 화친조약을 맺자 청나라 병사들에게 斥和論者로 지목되어 심양에 끌려갔다. 윤집은 그곳에서 온갖 고문과 회유 등을 받았으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절의를 지키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시의 후반부는 윤집에 대한 윤봉구의 평가이다. 윤집이 목숨을 걸고 청나라와 화친을 반대한 것은 청나라가 중화문명으로 문명화된 민족이 아닌 누린내 나는 야만족인 여진족이 세운 나라이며, 이러한 나라와 父子의 관계를 맺는 화친은 春秋大義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집의 순절은 춘추대의를 위한 행위이고, 그러한 순절은 아무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인들이 태산처럼 우러러 본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시에서 태산은 윤집이 춘추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절의를 비유하여 아무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일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조선 후기 문인인 金邁淳(1776~1840)이 지은 <漫吟> 시이다.

41) 『史記』 권83, 「魯仲連列傳」에 의하면, 노중련은 전국 시대 齊나라의 高士이다. 그가 趙나라에 가 있을 때 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수도인 邯鄲을 포위했는데, 이때 魏나라가 장군 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僭稱한다면 나는 동해를 빠져 죽겠다.'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후퇴시켰다고 한다.

十年南畝旱飛埃	10년 동안 농사지으며 일찍이 먼지를 날려버리고
覓得桃梨手自栽	도리화를 감상하기 위해 손수 심고 가꾸었네.
不怪傍人嫌醋澀	옆 사람의 질투와 껄끄러움도 꽤넘치 않고
請君試具肉糜來	그들에게 육회를 만들어 오라고 청하네.
從人學得泰山名	남을 따라 배워야 태산같은 명성 얻을 수 있는데
地上還嘲岸上行	지상에선 도리어 언덕 위의 일행을 조롱하네.
冷眼何曾睇絕頂	차가운 눈초리로 어찌 절정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血誠應是護深坑 ⁴²⁾	분명 참된 정성으로 깊은 구렁이나 지키게 되리라.

이 시는 영조~고종 연간의 문인인 김매순이 1806년 그의 나이 31세에 伯從兄 金達淳(1760~1806)이 연루된 獄事가 일어나자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인 楊州 泮水(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리리)로 내려가 산 지 10여년 지난 뒤 지은 시이다.

시의 전반부는 작자인 김매순이 한양에서의 관직생활을 버리고 향리에 내려와 손수 농사와 화초를 가꾸며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김달순의 옥사에 연루되어 향리로 낙향한지 10여년이 지난 뒤,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함께 마시는 관계로까지 친밀하게 되었다. 기실 그의 백중형인 김달순은 1806년 純祖에게 朴致遠(1680~1767) 등을 追贈하라고 아뢰었다가, 趙得永(1762~1824) 등 時派로부터 정조의 遺旨에 위배된다는 공격을 받고 전라도 강진현에 유배되어 賜死를 당했다. 김매순도 이 때 탄핵을 받아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한 것이다.

시의 후반부는 학문에 매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다. 기실 사대부는 벼슬에 나아가면 평소에 갈고 닦은 학문을 실행에 옮기고, 벼슬에서 물러나면 자연에 은거하여 학문을 수양하고 뒷날을 도모하는 것이 삶의 자세이다. 김매순은 벼슬을 버린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훌륭한 스승을 찾아 학문에 전념하지도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다.

42) 金邁淳, 『臺山集』, 한국문집총간 294, p.285, <漫吟>.

학문이란 훌륭한 스승을 직접 사사하거나 서책을 통해 私淑하여야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그가 처음 향리인 漢水로 낙향할 때에는 先祖인 三淵 金昌翁(1653~1722)과 農巖 金昌協(1651~1708), 漢湖 金元行(1702~1772)처럼 학문에 침잠하여 태산과 같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였었다. 하지만 時議는 청나라로부터 서양의 과학기술 등 새로운 학문이 노도처럼 밀려들어 오기 시작하자, 성리학을 고수하는 산림처사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는 時宜에 좌고우면하느라 학문에 침잠하지 못하여 고향땅 한 구석을 지키는 서생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 시에서 태산은 작자의 선조들이 이룬 학문적 성취가 높아서 자신과 같은 서생이 이를 수 없는 높은 경지를 형상화하는 시어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태산은 태산이라는 이름의 상징성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크고 높은 산이라는 집단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그 의미가 전성되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를 비유하는 어휘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한시에서는 주로 자손들이나 후학들에게 훈계의 목적으로 지은 시에서 학문의 목표를 높게 세울 것을 당부한 시에서 활용되었다.

V. 結論

본고는 우리문학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漢詩에서 인용된 태산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아서 태산의 의미와 이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泰山은 岱宗, 岱山, 岱岳, 泰岱 등으로도 불리는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532m로 크게 높지 않은 산이다. 그러나 중국 역대 왕조의 황제들이 통치의 정당성을 하늘로부터 확인받는 의식인 封禪儀式을 이곳에서 거행하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五岳 가운데 가장 성스럽게 여겼다. 또한 유학을 집대성하여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가 이 산을 오른 이후 공

자를 상징하는 산이 되었다. 이후 태산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위대한 산이 되어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사용하는 관용구나 속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휘가 바로 태산이다.

사람은 이미지와 기호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의미를 재생산한다.⁴³⁾ 태산이 단지 중국에 있는 높은 산이지만 공자가 자신의 죽음을 태산에 비유한 이후에는 그 의미가 轉成되어 공경하는 인물, 중대하고 가치가 있는 일, 안정적인 것, 丈人の 별칭 등으로 비유되었다.

태산이 문학의 소재로 등장한 것은 『시경』이며, 공자가 태산을 등정한 이후 많은 문인들이 태산에 올라 수없이 많은 시문을 남겼다. 그 가운데 두보가 태산에 올라 지은 <望嶽> 시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문인 가운데 태산을 소재로 하여 쓴 시는 고려 말 李穡이 지은 <雲出泰山>이 최초이고, 이후 조선에 들어와서 李民宓, 鮮于湊, 吳翹, 李玄錫, 徐宗泰 등이 시를 지었다. 또한 태산을 시어로 인용한 시는 그 수효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태산은 우리나라의 漢詩에서는 주로 挽詩에 인용되어 고매한 인품이나 학식, 덕망 등이 높은 亡者를 비유하는 시어로 사용되었고, 그 의미가 轉成되어 중대한 가치가 있는 일,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 안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경지 등을 비유하는 시어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첫째,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의 형상화한 시를 살펴보았다. 태산이 존경과 경모를 받는 인물을 비유한 것은 『禮記』 「檀弓」 上에 공자가 逝世한 것을 ‘泰山其頽’라고 하여, 공자의 죽음을 비유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태산은 공자와 같은 성인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고, 훗날 학문이나 공적이 뛰어난 인물을 비유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한시에서는

43) 최원석, 「중국의 태산문화 전개와 한국의 수용 양상 - 동아시아 산악문화 논구 試論 -」, 『문화역사지리』 24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p.63.

亡者의 님을 추모하는 挽詩에 주로 활용되었다. 權近의 <謝領議政河公枉駕問病>시에서는 영의정 河崙의 경륜이 뛰어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을 태산에 비유하였고, 趙緯韓은 申欽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挽玄軒象村>에서 신희의 인물됨을 태산에 비유하였듯이, 태산은 존경을 받는 인물을 형상화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둘째, 태산이 중대한 가치가 있는 일의 형상화한 시를 살펴보았다. 태산이 중대하고 가치가 있는 일을 비유한 것은 司馬遷이 선배 관료인 任安에게 보낸 편지인 <報任少卿書>에서 보인다. 사마천은 이 편지에서 『史記』를 완성하여 죽음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태산에 비유하였다. 이후 ‘태산’은 단순히 높고 큰 산이라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중대한 일을 비유하는 어휘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鄭希良은 <李陵> 시에서 李陵을 변호하여 목숨은 태산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投降한 것이라고 변호하였고, 金昌翁은 <善竹橋> 시에서 정몽주의 죽음은 殺身成仁한 것이므로 태산보다 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칭송하였듯이, 태산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事]을 형상화하는 시어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셋째, 태산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형상화한 시를 살펴보았다. 태산은 실상 그리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태산이라는 이름의 상징성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서 집단이미지가 형성되어있다. 楊士彥의 시조인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에서 태산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를 비유한 표현이다. 李穀은 <用家兄詩韻 寄示兒子訥懷> 시에서 아들에게 학문의 목표를 태산에 두고 노력하여야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였고, 尹鳳九는 <次林溪尹學士集 贈職改旌韻> 시에서 尹集이 죽음을 불사한 절의가 태산처럼 높다고 칭송한 것처럼 태산은 아무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경지를 형상화한 시어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태산이 우리나라의 언어생활과 사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나라 문인이 태산을 소재로 한 시가 매우 적은 것은 태산의 위치가

중국의 역대 왕조의 수도였던 북경에 이르는 사행로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태산은 주로 만사에서 활용되어 땅자의 덕과 업적을 비유하였는데, 이는 땅자의 업적을 기리는 열전이나 행장에서 활용된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태산을 직접 소재로 한 한시를 비롯하여 태산을 직접 유람하고 쓴 유람기를 발굴하여 우리조상들이 태산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 文獻〉

- 權近, 『陽村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7, 한국고전번역원.
金邁淳, 『臺山集』, 한국문집총간 294, 한국고전번역원.
金昌翁, 『三淵集拾遺』, 한국문집총간 166, 한국고전번역원.
柳麟錫, 『毅庵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337, 한국고전번역원.
柳方善, 『泰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8, 한국고전번역원.
李穀, 『稼亨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3, 한국고전번역원.
李民成, 『敬亭先生集』, 한국문집총간 76, 한국고전번역원.
李穡, 『牧隱詩藁』, 한국문집총간 4, 한국고전번역원.
李石亨, 『泰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9, 한국고전번역원.
李潁, 『星湖先生全集』, 한국문집총간 198, 한국고전번역원.
李玄錫, 『游齋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56, 한국고전번역원.
朴祥, 『訥齋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8, 한국고전번역원.
徐宗泰, 『晚靜堂集』, 한국문집총간 163, 한국고전번역원.
鮮于浹, 『遜菴先生全書』, 한국문집총간 93, 한국고전번역원.
宋奎濂, 『霽月堂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37, 한국고전번역원.
吳翹, 『天坡集』, 한국문집총간 95(續), 한국고전번역원.
尹鳳九, 『屏溪先生集』, 한국문집총간 203, 한국고전번역원.
鄭希良, 『虛庵先生遺集』, 한국문집총간 18, 한국고전번역원.
趙緯韓, 『玄谷集』, 한국문집총간 73, 한국고전번역원.
河弘度, 『謙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續) 97, 한국고전번역원.
『書經』, 明文堂.
『詩經』, 明文堂.
『禮記』, 明文堂.
『孟子』, 明文堂.
『文選』, 中國 啓明文化社.
『新唐書』, 中國 中和書局.
蘇軾·黃庭堅, 『東坡集·山谷集』, 中國 岳麓書社.
杜甫, 『杜詩鏡典』, 臺灣 中和書局.

- 김덕현, 「반드시 정상에 올라 작은 산을 빙 둘러 보리라」, 『태산, 그 문화를 만나다』, 민속원, 2012.
- 김지영, 「태산문화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지리산문화연구의 의의와 전망」, 『남도문화연구』 31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6.
- 심우영, 「泰山詩에 나타난 人文景觀 연구」, 『중국문학연구』 33집, 한국중문학회, 2006.
- 윤석우, 「唐詩에 나타난 中國의 名山」, 『중국어문학논집』 35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 최원석, 「중국의 태산문화 전개와 한국의 수용 양상 —동아시아 산악문화 논구 試論—」, 『문화역사지리』 24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 of Shaping of Taishan Quoted in the Chinese Poetry of Korea

Lee, DongJae*

Taishan is a mountain in Shandong province, China, where the Emperors of the Chinese dynasties held ritual ceremonies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reign, and it was recognized as the most sacred mountain since Confucius had climbed this mountain. It is 『Shijing』 that Taishan appeared as a material of literature, The poem, Mangak(望岳) that Tu Fu, a poet wrote when he went onto Taishan, had a lot of effects not only on the Chinese literati but also on the Korean literati.

Taishan most frequently appears in the common idioms and proverbs that we use everyday, and is a poetic diction that often appears in the Chinese poetry written by the literati. Among the Korean literati, <UnchulTaishan(雲出泰山)> is the first poem to be written by Lee Saek(李穡), at the end of Goryeo, followed by Lee Min seong(李民成), Seonwu Hyeop(鮮于浹), Oh Suk(吳勳), Lee Hyeon seok(李玄錫) and Seo Jong tae(徐宗泰), who wrote this poem.

In the Chinese poetry in Korea, Taishan was mainly quoted in monody and used as a poetic diction which is likened to be a decedent, who was high in personality, learning style, and virtue etc. It was called “Taishan Gitoe(泰山其頽)” in 『Tangong(檀弓)』 of 『Liji』, and was compared as a comparison of a scholar and a public figure after being compared with the death of Confucius.

Also, it was transmuted in its meaning and used as a poetic diction to compare the meaning of something with great significance. This is due to Simaqian(司馬遷)’s letter to Linan(任安) saying that the completion of 『Shiji』 compared to Taishan is more precious and worthwhile than death, and in the Chinese poetry in Korea, the poetry is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dj@kongju.ac.kr

often used as a poetic diction which likens the act of 'Salshinseongin(sacrifice oneself to preserve one's integrity, 殺身成仁)'.
殺身成仁

Furthermore, Taishan likened the higher grounds that cannot be tolerated, and it was mainly used in the poetry that encouraged progeny or junior scholars to set a bigger goal of scholarship in the poetry for the purpose of instruc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a challenge for us to review how our ancestors shaped Taishan by excavating excursion notes which were written while traveling Taishan in person, including the Chinese poetry, in which Taishan was selected as a direct material.

【Key words】 Taishan(泰山), Confucius, luminary(泰斗), Shijing, Tu Fu(杜甫), monody (挽詩)

투고일 : 10월 31일, 심사완료일 : 12월 1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